

- 주요 뉴스: 미국, 연준 주요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 집중 및 경제지표(PMI) 부진
 - 유럽중앙은행(ECB) 정책위원들, 고강도 통화긴축 지속 시사
 - 영란은행(BOE), '23년 1분기 양적긴축(직접매각 방식) 세부 계획 발표
 - 중국 지도부, 개혁·분배보다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 기조 유지
 - 국제금융시장: 주요국 고강도 통화긴축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로 위험선호 약화
미국, 주가 하락[-1.1%], 달러화 강세[+0.3%], 금리 상승[+3bp]
 - 주가: 미국 S&P500은 연준의 매파적 발언, 경제지표 부진으로 3일 연속 하락
 유로 Stoxx600은 ECB의 고강도 통화긴축 예고에 따른 침체 우려로 1.2% 하락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안전통화 선호를 자극하면서 반등
 유로화 가치는 0.4% 하락, 엔화 가치는 0.9% 상승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침체 우려보다 글로벌 통화긴축 가이던스를 주로 반영
 독일 등 유로존 국채금리는 ECB 고강도 통화긴축을 선반영하며 2일 연속 급등
- ※ 원/달러 1M NDF환율(1309.5원, +5.3원) 0.4% 상승, 한국 CDS 3bp 상승

주요지수					주요금리				
		12/16일	12/15일	전일대비			12/16일	12/15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3,852.4	3,895.8	-1.11%	국채금리 10y	미국	3.48%	3.45%	3bp
	유럽	424.74	429.91	-1.20%		독일	2.15%	2.08%	7bp
	중국	3,167.9	3,168.6	-0.02%		영국	3.33%	3.24%	9bp
	일본	27,527	28,052	-1.87%	CDS 5y	한국	56bp	53bp	3bp
	한국	2,360.0	2,361.0	-0.04%		중국	76bp	74bp	2bp
환율	달러지수	104.84	104.56	0.27%	위험지표	EMBI+	-	380	-
	유로화	1.0586	1.0628	-0.40%		VIX	22.62	22.83	-0.92%
	엔화	136.60	137.78	0.86%		WTI유	74.29	76.11	-2.39%
	위안화	6.9740	6.9738	0.00%	원자재	구리	376.15	376.3	-0.04%
	원화	1,305.4	1,303.1	-0.18%		금	1,793.1	1,776.9	0.91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, 연준 주요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 집중 및 경제지표 부진

-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내년 중 정책금리를 현재의 예상보다 더 높게 올릴 수 있다고 언급.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금리가 정점에 도달하면 1년은 동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.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율이 계속 하락할 때까지 금리를 5%대에 유지해야 한다고 발언
- 미국 제조업 PMI는 11월 47.7에서 12월 46.2(예상치 47.8), 서비스업 PMI는 46.2에서 44.4(예상치 46.5)으로 하락하며 경기가 수축 국면에 있음을 시사. 단, S&P Global은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둔화 징후도 내재되어 있다고 부언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유럽중앙은행(ECB) 정책위원들, 고강도 통화긴축 지속 시사

- 빌로이 드 갈로 정책위원,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'23년 상반기 중 정점을 찍은 뒤에야 완화될 것이라고 경고. 정책금리 인상을 주요 인플레이션 대응 도구로 활용하되 양적긴축은 '23년 7월부터 가속 가능성 시사
- 노트 정책위원, 정책금리 인상 측면에서 연준이 ECB보다 중점에 가까운 만큼 향후 ECB는 더 큰 폭의 금리인상을 단행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. 단, 미국의 과열 문제가 유럽보다 깊기 때문에 금리 격차가 완전히 좁혀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

■ 영란은행(BOE), '23년 1분기 양적긴축(직접매각 방식) 세부 계획 발표

- BOE는 15일 통화정책회의에서 예고한 대로, 내년 1분기 중 진행할 양적긴축(QT)의 세부 일정을 발표. 단기·중기·장기 국채를 각각 £32.5억씩 5차례에 걸쳐 매각(총 £97.5억)할 계획이며 2분기 양적긴축 세부 계획은 3.24일 발표 예정

■ 중국 지도부, 개혁·분배보다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 기조 유지

- CCTV(중국중앙방송), 15~16일 중국 지도부가 참석한 중앙경제공작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작년처럼 “안정 우선, 안정 속 성장(온자당두 穩字當頭·온중구진 穩中求進)”을 견지하면서 적극적 재정정책, 온건한 통화정책 등 성장 중심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보도
-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, 최근 발표한 방역 완화조치와 경제 안정 정책이 점차

효과를 나타내면서 중국 경제가 회복될 것이나, 세계경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어 지속적인 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고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

■ 이탈리아 내각, 유럽중앙은행의 금리인상 조치를 비판

- 15일 ECB의 금리인상에 대해, 타자니 부총리는 러우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시장과 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경제성장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비판했고, 크로세토 국방장관은 유럽 경제에 피해를 가함으로써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연대를 약화시키는 등 러시아에 오히려 도움을 주고 있다고 주장

■ 러시아 중앙은행(CBR), 12월 정책금리 동결(7.50%)

- CBR, 12.16일 통화정책회의 이후 성명을 통해 정책금리(key rate)를 7.50%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면서도, 소비자 물가의 완만한 상승, 여전히 높은 가계·기업의 인플레이션 기대, 하방 위험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상방 위험을 강조

■ 태국 중앙은행, 인플레이션 둔화 진단 및 통화긴축 감속 준비

- 수티와르 나루에팟 총재, 태국 '23년 성장은 가계부채 등의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지만 민간 소비와 관광 회복에 힘입어 3%대 성장할 것이며, 태국에 공격적인 금리인상은 적합하지 않으므로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

■ 필리핀 중앙은행, 통화긴축 강도 유지 시사

- 메달라 총재,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'23년 인플레이션율을 목표 범위(2~4%)로 되돌리기 위해 다음 두 차례 통화정책 회의에서도 인상을 지속할 것이며 동결 가능성은 극단적으로 낮다고 언급

주요 경제지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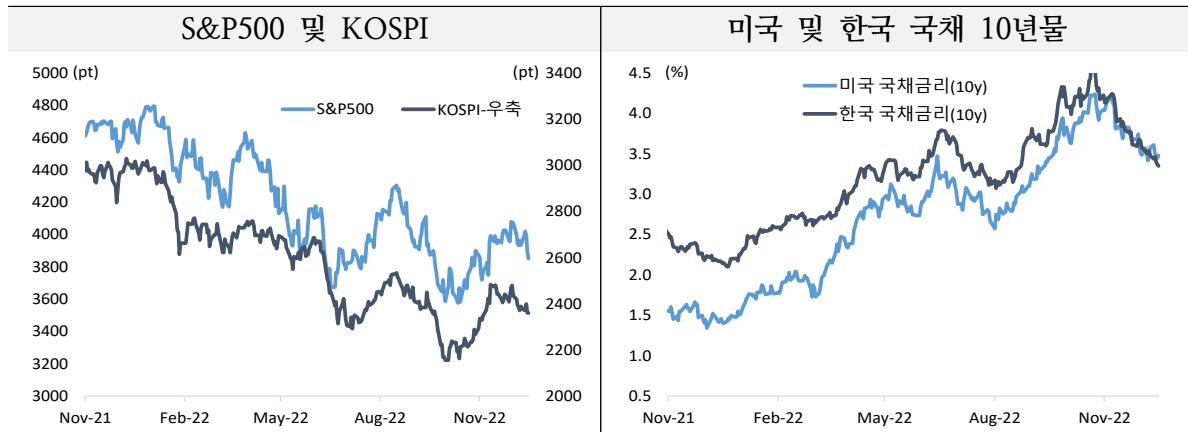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12/16 현지시각 기준)

- 유로존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: +10.1%, 10월(+10.0%), 예상치(10.0%)
- 미국 12월 제조업 PMI: 46.2, 11월(47.7), 예상치(47.8)
- 유로존 12월 제조업 PMI: 47.8, 11월(47.1), 예상치(47.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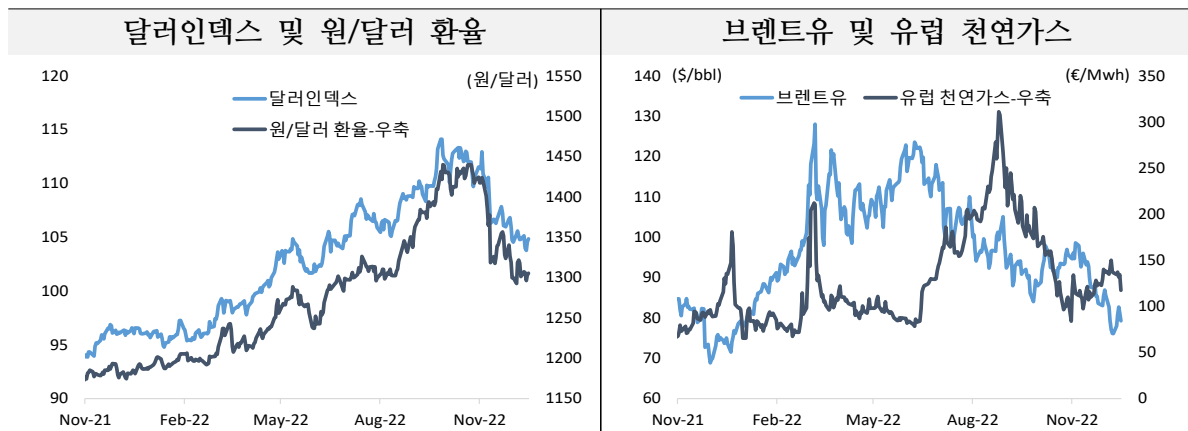
■ 주요 경제 이벤트(12/19 현지시각 기준)

- ECB 권도스 부총재의 통화정책 관련 연설(Nueva Economía Fórum), EU 에너지 장관들의 겨울철 천연가스 가격 상한 설정 관련 회의 재개 등이 예정
- 독일 12월 Ifo 기업환경지수(11월 86.3, 예상치 87.0) 발표 등에도 주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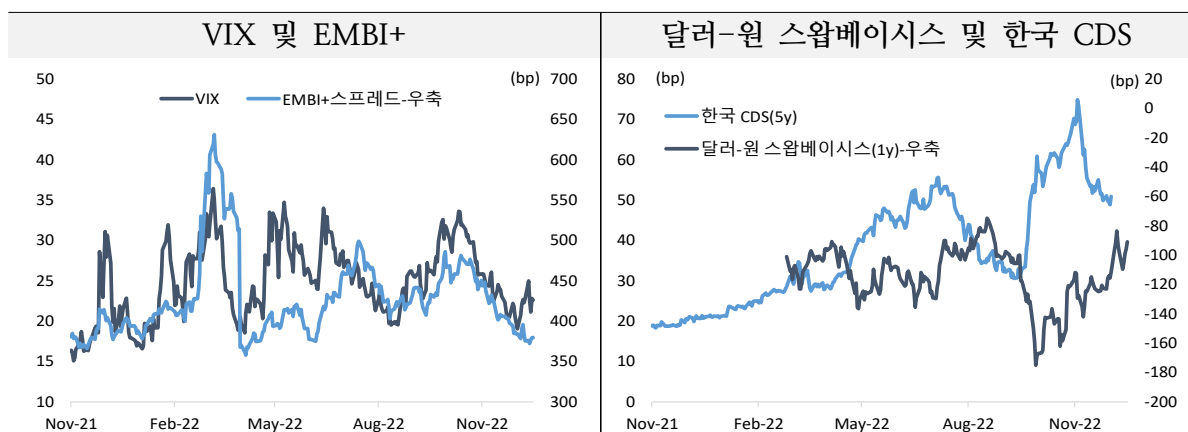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11, E-mail swlee@kcif.or.kr